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4.6bn deals near: Petrobras seals price cuts from two Asian yards for Buzios floater pair

브라질의 Petrobras가 총 46억달러 규모의 FPSO 2기에 대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 Buzios pre-salt field에 투입하기 위하여 2개의 조선사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Keppel 컨소시엄과 대우조선해양-Saipem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됨. (Upstream)

'Need for speed': Shell and Equinor urge Tanzania's president to open talks on \$30bn LNG project

Shell과 Equinor가 탄자니아의 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에게 오랜 기간 지연된 300억달러 규모의 LNG 프로젝트 재개를 촉구함. 두 에너지업체는 고 John Magufuli 대통령의 부정적인 입장에 약 6년간 해당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알려짐. Hassan 대통령은 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Aramco floats mega-tenders for huge Saudi oilfield project

사우디아라비아 Aramco가 육/해상 공사에 대한 대규모 입찰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해당 공사에는 Zuluf 유전 프로젝트도 포함되는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생산량을 일산 1,300만배럴가량 늘리기 위한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알려짐. Zuluf incremental 프로젝트는 현재 생산량을 두배로 늘릴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Shipping needs \$3.4trn investment to meet 2050 decarbonisation target, Stopford says

IMO(국제해사기구)의 탈탄소화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이 향후 30년간 3.4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됨. 탈탄소화 목표 대비 친환경선박에 대한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선박 건조 시 새로운 기술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1분기 해운 업황 13년만에 최고

1분기 ClarkSea Index(탱커/벌크선/컨테이너선/가스운반선 수입 지표)는 일일 17,461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통상적으로 다른 3개 분기보다 계절적인 약세가 두드러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운임 강세로 인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고망간강 LNG탱크 곧 본격 생산

세진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LNG연료탱크 제작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협약은 9% 니켈강과 고망간강을 적용한 LNG연료탱크 제작에 대한 기술개발이라고 알려짐. 전세계 LNG추진선 건조 규모는 2021년 20조원에서 5년 뒤에는 13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